

소외된 존재들을 중심으로 끌어안기

하이데거에 의하면 타자란 나와 함께 공동의 세계를 형성하면서 그 곳에 함께 살고 있는 공동 현존재이다. 공동 존재는 세계-내-존재의 실존론적 구성요소이다. 공동 현존재는 환경세계적으로 만난다. 타자들은 세계, 즉 배려하면서 배시하는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를 근거로 해서 만난다. 인간이 자연을 만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인간도 자연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태학적 피라미드 구조 속에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배려가 부족해서 극심한 환경 파괴가 온다. 개인의 욕망 채우기에 급급해서 죽어가는 타자의 상처입고 피폐해진 몸에는 별 관심이 없다. 타자들에 대한 배려와 배시라는 화두를 이견영 작품에서 또한 직관할 수 있다.

인간이 아는 한 광활한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이 산다. 인간의 산업화는 생명이 사는 단 한 곳인 지구를 오염시키고 황폐화시켜가고 있다. 작가는 둥근 형태의 공간 속에 오염된 이미지를 배치시켰다. 원은 완전성, 무한, 영원을 상징한다. 동시에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간이며 위와 아래가 없는 무공간을 나타낸다. 우주의 생성원리와 소멸 원리를 내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원의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는 원은 우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염되어 생명력을 잃은 이미지를 원이라는 생명의 우주 공간으로 불러들여 작가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생명성을 잃어가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작가정신이 작품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원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낯설고 두려우면서도 신비롭다. 신비롭고 환상적이라고 인식하는 행성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존재의 진실을 바로 봐야한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현대인은 거짓된 이미지의 홍수 속에 이끌려 살아간다. 가짜 이

미지가 착각하게 만드는 가짜 유토피아에서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며 산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유명처럼, 황폐하고 공허한 행성처럼 말이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이견영 작품의 행성도 우울하고 어두운 상태로 존재한다. 어둠은 죽음이고 침묵이다. 절규이고 함성이다. 우주 공간에 외롭게 떠있으면서 아무런 생명도 자라지 않는 행성은 죽음과 같다.

꽃들과 나무들이 평화롭게 어우러져 벌과 나비가 함께 느린 속도로 날아다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 무릉도원을 우리는 꿈꾼다. 환경오염이 계속 진행된다면 프레임 안의 기묘한 무늬들처럼 변해서 지구도 생명이 살지 못하는 행성이 될지도 모른다. 타자에 대한 마음 쓰름을 하이데거는 고려라고 한다. 행성처럼 외롭고 아픈 땅과 아픈 존재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는가. 하이데거는 타자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한다. 이견영 작가는 소외된 땅들을 응시하고 말을 걸고 포착한다. 타자는 나와 다를 바 없는 세계-내-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견영 작품은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의 아우라를 탄생시켰다. 타인의 고통을 알고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기에 가치 있고 아름답다.

시인, 연경 인문 문화예술연구소 소장 석연경

사진의 정의, 1839갤러리